

『素問·經脈別論』의 五藏喘에 대한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對於『素問·經脈別論』之五藏喘的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通過『素問·經脈別論』의 五藏喘之考察, 得到了如下的結論.

其一是, 如果夜行則腎不藏精爲陰虛的狀態所以喘出於腎, 這就是關於陰虛的喘. 腎與肺爲陰化科程的兩個軸如果一個軸受病一個異軸亦受病所以腎病傳於肺.

其二是, 墮則生瘀血, 肝有藏血的機能所以肝與血有密接的關係, 這就是關於有痰的喘. 肝有疏泄機能這關於脾的穀氣傳達, 所以肝有病則脾的穀氣傳達機能也受了障礙.

其三是, 驚恐則氣蕩散又下陷所以主氣的肺有病這就是關於氣虛的喘. 如果肺有病則失收斂與肅降機能, 所以心的陽氣不傳達於下則心受損傷.

其四是, 由於渡水跌仆則水濕之邪侵犯人體, 又由於過度的活動則腎精耗損, 這就是關於陰虛與有痰的喘. 濕有留着的性所以病不傳達於他藏.

關鍵詞: 五藏喘, 夜行, 墮恐, 驚恐, 渡水跌仆

I. 緒論

천식은 숨가쁨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 주거환경·식생활 등의 원인으로 인해 근래 들어 자주 발생하며 또한 치료하기 힘든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說文解字注』에서는 “喘, 疾息也”¹⁾라 하여 천식을 숨이 가쁜 것으로 인식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諸痿喘嘔, 皆屬於上.”²⁾이라고 하여 上部의 질환임을 밝히

고 있다. 한편, 張介賓은 喘促을 『素問·至眞要大論』의 文장을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諸氣膈鬱, 皆屬於肺. 諸痿喘嘔, 皆屬於上. 諸逆冲上, 皆屬於火.”³⁾라고 하여, 喘을 氣가 上衝하는 질환으로 肺와 上部에 관련된 질환으로 火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內經』과 張介賓의 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醫家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喘의 원인에 대

* 교신저자: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許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1990, 56쪽.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社, 1981, 304쪽.

3)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景岳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114쪽.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특히 『素問·經脈別論』에서는喘의 원인, 주된 장부, 전이되는 장부에 대해 독특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素問·經脈別論』에서는喘의 원인에 대해 정신적 요소를 포함시켰고,喘이 발생하는 장부에 대해서도肺에 국한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喘症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喘의 원인과 그에 따라喘이 나타나는 장부, 그리고 전이되는 장부와 관련된 각 注釋家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素問·經脈別論』에서는 五藏의喘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是以夜行, 則喘出於腎, 淫氣病肺. 有所墮恐, 喘出於肝, 淫氣害脾. 有所驚恐, 喘出於肺, 淫氣傷心. 度水跌仆, 喘出於腎與骨.

(이러한 까닭으로 밤에 움직이면,喘이腎에서 발생하고,淫氣가肺를 병들게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두려움이 있으면喘은肝에서 발생하고,淫氣가脾를 해칩니다. 놀라고 두려움이 있으면,喘이肺에서 발생하고淫氣가心을 손상합니다. 물을 건너다 헛다더 넘어지면喘이腎과骨에서 발생합니다.)⁴⁾

이 문장에 대해 『素問校釋』에서는喘을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⁵⁾ 대부분의 醫家들이喘息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喘息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 문장의 특징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喘을腎·肝·肺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肺·脾·心으로

전이됨을 설명하여喘이五藏과 모두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度水跌仆, 喘出於腎與骨』에서는 전이되는 장부가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에 먼저 각 주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논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1. 주석가들의 견해

1) 是以夜行, 則喘出於腎, 淫氣病肺.

① 是以夜行, 則喘出於腎

저녁에 돌아다니면喘이腎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王冰⁶⁾·吳崑⁷⁾·張介賓⁸⁾은 夜半은腎이主하는 시기로腎이 자연으로부터氣를 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腎이 수고롭기 때문에喘이腎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馬蒔는 저녁은營氣가 길러지는 시간인데 이때 활동을 하면營氣가 길러지지 못하고, 그 결과陰不足으로喘이腎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⁹⁾ 셋째, 張志聰¹⁰⁾·高士宗¹¹⁾·胡天雄¹²⁾은腎은갈무리를 주관하는 장부인

6)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腎王於夜, 氣合幽冥, 故夜行則喘息內從腎出也.”

7)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08쪽.

“腎受氣於亥子, 故夜行則勞骨損陰, 喘出于腎.”

8)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530쪽.

“腎者至陰也, 陰受氣于夜, 夜行則勞骨傷陰, 故喘出于腎.”

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4쪽.

“是以腎屬少陰, 衛氣夜行于陰, 營氣以寐而養, 設當夜而行, 則喘息內出于腎.”

10)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206쪽.

“腎屬亥子, 而氣主閉藏, 夜行則腎氣外泄, 故喘出于腎.”

11)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156쪽.

“平人之氣, 和于經脈, 勞動喘急, 則經脈失常, 是以夜行勞動, 氣不閉藏, 則喘出于腎.”

12)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55~156쪽.

“可見一日之有夜半, 猶一年之有冬季, 此時氣溫最低, 萬籟俱寂, 陰閉于外, 陽藏于內, 人與自然相應而陽氣亦相應內藏. 故善養生者, 暮而收拒, 無擾筋骨, 無逆冬藏之道. 今夜行而至于喘, 則筋骨之勞累可知. 腎在一年主冬, 在一日主

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社, 1981, 86쪽.

5)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데 저녁에 활동을 함으로 인해 腎이 갈무리를 못하게 되고 그 결과 腎氣가 外泄되어 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② 淫氣病肺

淫氣病肺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王冰은 氣가 음란해져 木→火→土→金→水라는 정상적인 五行의 순서를 어기게 되어, 거꾸로 肺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¹³⁾ 둘째, 馬蒔¹⁴⁾와 胡天雄¹⁵⁾은 子가 虛하면 母의 氣를泄하기 때문에 腎의 母藏인 肺가 병드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吳崑¹⁶⁾과 張介賓¹⁷⁾은 腎少陰脈이 위로 肺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肺가 병드는 것으로 보았다. 넷째, 張志聰¹⁸⁾과 高士宗¹⁹⁾은 腎을 本, 肺를 末로 인식하여 本인 腎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末인 肺가 병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有所墮恐, 喘出於肝, 淫氣害脾.

① 有所墮恐 喘出於肝

이 구절에서 먼저 언급할 부분은 “恐”에 대한 문제이다. 王冰은 “恐生於肝”²⁰⁾이라고 하여 恐과 肝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丹波元簡은 恐은 腎

夜半, 故夜行而喘, 則氣出于腎.”

- 1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夜行腎勞, 因而喘息, 氣淫不次, 則病肺也.”
- 1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4쪽.
“肺爲之母者, 子氣受淫, 上干于肺, 肺斯病焉.”
- 15)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56쪽.
“夜行而喘, 腎氣不藏, 腎氣既亂則肺受病, 子虛則盜母氣也.”
- 16)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08쪽.
“淫氣, 氣有餘而偏勝爲患也. 病肺, 腎少陰之脈上入肺中, 喘氣上逆, 肺苦之也.”
- 17)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530쪽.
“淫氣者, 陰傷則陽勝, 氣逆爲患也. 肺腎爲母子之藏, 而少陰之脈上入肺中, 故喘出于腎則病苦于肺”
- 18)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206쪽.
“腎爲本, 肺爲末, 腎氣上逆, 故淫傷于肺也.”
- 19)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156쪽.
“腎爲本, 肺爲末, 故淫氣病肺, 失其常矣.”
- 20)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의 志임을 언급하면서 王冰의 주장이 무엇을 근거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²¹⁾ 胡天雄은 恐이 肝과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제기하면서 怒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²²⁾ 이외의 다른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설명하면서 “恐”字를 붙여 설명하고 있지만 “墮”字에 관점을 맞추고 있을 뿐, “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로 볼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발생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墮”라고 볼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王冰²³⁾·吳崑²⁴⁾·張介賓²⁵⁾·張志聰²⁶⁾·高士宗²⁷⁾ 등은 모두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筋을 손상하고, 筋은 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喘이 肝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馬蒔는 血이 不納하기 때문으로 보았고,²⁸⁾ 胡天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瘀血이 생기게 되어 喘이 肝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²⁹⁾

21) 丹波元簡,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138쪽.

“簡按恐, 爲腎志. 王謂生于肝, 未知何據. 諸家亦欠詳.”

22)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56쪽.

“下文有所驚恐, 此不當又有墮恐, 恐亦無關於肝也. 『靈樞·邪氣藏府病形篇』, ‘有所墮墜, 惡血留內. 若有所大怒, 氣上而不下, 積于脇下, 則傷肝.’ 據此, 知恐字當是怒字之誤. 墮留瘀血, 怒致氣逆, 皆足傷肝. 此怒字和前文驚恐悲勞的志字相應, 志亦怒也.”

2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恐生於肝, 墮損筋血, 因而奔喘, 故出于肝也.”

24)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08쪽.

“墮傷筋, 筋屬於肝, 故墮恐喘出于肝.”

25)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530쪽.

“有所墮墜而恐者, 傷筋損血, 故喘出于肝.”

26)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207쪽.

“墮則傷筋, 筋卽爲肝, 故喘出于肝.”

27)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156~157쪽.

“有所墮恐, 因墮而內恐也, 墮傷筋, 肝主筋, 苦喘出于肝.”

28)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4쪽.

“有所墮墜而恐, 則筋既受傷, 血亦不納, 其喘息內出于肝.”

29)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56쪽.

“下文有所驚恐, 此不當又有墮恐, 恐亦無關於肝也. 『靈樞·邪氣藏府病形篇』, ‘有所墮墜, 惡血留內. 若有所大怒, 氣上而不下, 積于脇下, 則傷肝.’ 據此, 知恐字當是怒字之誤. 墮留瘀血, 怒致氣逆, 皆足傷肝. 此怒字和前文驚恐悲

② 淫氣害脾

淫氣害脾에 대해서는 王冰³⁰⁾·馬蒔³¹⁾·吳崑³²⁾·張介賓³³⁾·張志聰³⁴⁾·高士宗³⁵⁾ 등의 모든 醫家들이 모두 木克土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3) 有所驚恐, 喘出於肺, 淫氣傷心.

① 有所驚恐 喘出於肺

王冰은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氣亂胸中, 故喘出於肺也.”³⁶⁾라 하여, 놀라는 것으로 인해 心神이 歸倚할 곳이 없게 되고 氣가 胸中에서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喘이 肺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馬蒔³⁷⁾·吳崑³⁸⁾·張介賓³⁹⁾·張志聰⁴⁰⁾·高士宗⁴¹⁾ 등 여러 주석가들은 王冰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다만, 張介賓과 高士

宗은 肺와 氣의 관계, 즉 “肺藏氣”와 “肺主氣”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본 구절에서 喘이 肺에서 발생하는 이유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淫氣傷心

王冰은 “驚則神越, 故氣淫反傷心矣.”⁴²⁾라고 하여 놀라게 되면 心神이 歸倚할 곳이 없게 되어 神이 안정되지 못하고 외부로 發越하기 때문에 心을 傷한다고 보았고, 馬蒔⁴³⁾·吳崑⁴⁴⁾·張介賓⁴⁵⁾ 등도 王冰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한편, 張志聰⁴⁶⁾·高士宗⁴⁷⁾은 肺가 心の 덮개라 된다는 인식아래, 肺가 병들면 肺가 덮고 있는 心에 病變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渡水跌仆, 喘出於腎與骨.

본 구절에 대한 주석가들의 견해는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渡水”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는 것이다. 王冰⁴⁸⁾이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물을 건너게 되면 水濕의 邪氣에 노출되고, 水濕이 腎과 通하기 때문에 喘이 腎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渡水”는 腎과 관련시키고, “跌仆”는 骨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으로 馬蒔⁴⁹⁾·吳崑⁵⁰⁾·張介賓⁵¹⁾ 등이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勞的志字相應, 志亦怒也.”

30)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肝木妄淫, 害脾土也.”

3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4쪽.

“肝氣反餘, 淫氣乘土, 脾被害焉.”

32)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08쪽.

“淫氣害脾, 木傳土也.”

33)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530쪽.

“肝氣淫則害于脾, 木乘土也.”

34)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207쪽.

“木勝土, 故淫氣害脾.”

35)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157쪽.

“肝木侮脾, 故淫氣害脾, 失其常矣.”

36)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3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4~165쪽.

“有所驚怖而恐, 驚則氣亂, 喘息內出于肺.”

38)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08쪽.

“驚則神越, 氣亂于胸中, 故喘出于肺.”

39)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530쪽.

“驚恐則神氣散亂, 肺藏氣, 故喘出于肺.”

40)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207쪽.

“驚則氣亂, 故喘出于肺.”

41)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157쪽.

“有所驚恐, 因驚而內恐也, 驚恐則氣機內亂, 肺主氣, 故喘出于肺.”

42)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4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5쪽.

“心無所依, 神無所歸, 所勝妄行, 心反傷焉.”

44)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08쪽.

“心藏神, 神亂則邪入, 故淫氣傷心.”

45)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530쪽.

“心藏神, 故淫氣傷之.”

46)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207쪽.

“肺者心之蓋, 故淫氣傷心.”

47)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157쪽.

“肺爲心之蓋, 故淫氣傷心, 失其常矣.”

48)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305쪽.

“濕氣通腎, 骨, 腎主之, 故度水跌仆, 喘出腎與骨矣.”

4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165쪽.

“渡水跌仆, 水通于腎, 跌仆傷則喘出于腎與骨.”

50)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108쪽.

즉, “渡水”의 경우는 王冰의 견해를 따르면서도, “骨”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跌仆”를 骨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胡天雄은 勞累의 산물이라고 인식을 하여, 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급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喘이 腎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²⁾

한편, 高士宗은 “渡水”를 “夜行”보다 심한 것으로 인식하여 夜行으로 인해 腎에서 발생하는 喘症보다 본 구절의 渡水로 인해 腎에서 발생하는 喘症을 더 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병의 전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 구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된 이유를 “不能上合于肺”라고 밝히고 있다.⁵³⁾

2. 논자의 견해

五藏喘과 관련된 『素問·經脈別論』의 문장은 病因과 관련 장부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病이 전이되는 장부와 관련된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병의 전변에 있어서 각각의 주석가들이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의문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渡水跌仆, 喘出於腎與骨”의 경우 병의 전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일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醫家들이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 문장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喘의 원인에 대해서는 陰虛氣虛有痰의 원인을 제시한 朱震亨의 이론⁵⁴⁾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是以夜行, 則喘出於腎, 淫氣病肺.

많은 醫家들이 설명하였듯이 夜半은 腎이 주관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腎은 閉藏을 통해 陰精을 기르게 된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冬三月을 閉藏이라 하고, 이 시기에는 외부 활동을 줄여 氣가 奪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養藏之道”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문장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저녁에 활동을 하게 되면 閉藏을 못하게 되어 陰精을 기를 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陰虛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夜行이 원인이 되어 喘이 腎에서 발생하는 것은 朱震亨이 제시한 喘의 원인 가운데 “陰虛”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淫氣가 肺를 병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腎은 閉藏을 주관하게 되고, 肺는 收斂을 주관한다. 즉, 肺가 수렴한 결과물을 腎이 받아 저장하는 것으로, 肺와 腎은 모두 陰化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肺와 腎은 陰化과정의 두 축인데, 그 가운데 한 축인 腎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肺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有所墮恐, 喘出於肝, 淫氣害脾.

앞 단락에서 언급하였듯이 “恐”에 대해서는 王冰을 제외한 다른 醫家들이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丹波元簡과 胡天雄은 “恐”을 잘못 배속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논자도 본 문장에서의 喘의 원인을 “墮”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고자 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筋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體內에 瘀血이 생기게 된다. 瘀血이 생기게 되면 氣血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痰이 발생할 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생긴 喘은 朱震亨이 제시한 喘의 원인 가운데 “有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瘀血이 생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喘이 肝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

“度, 渡同. 濕氣通于腎, 跌仆傷于骨, 故喘出焉.”

51)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530쪽.

“水氣通于腎, 跌仆傷于骨, 故喘出焉.”

52)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56쪽.

“度, 今當作渡. 跌仆, 形容倉惶急迫之意, 否則不致于喘. 『邪氣藏府病形』篇, ‘汗出入水則傷腎’ 據兩個傷腎的原因對勘, 則知喘與汗, 同一意義, 都是勞累的產物.”

53)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157쪽.

“渡水跌仆, 則既墮且驚, 甚于夜行, 故喘出于腎與骨.”

54) 朱震亨, 『丹溪醫集·丹溪心法·喘十五』, 人民衛生出版社, 1993, 254쪽.

“喘病, 氣虛, 陰虛, 有痰. 凡久喘之證未發, 宜扶正氣爲主, 已發用攻邪爲主. 氣虛短氣而喘, 甚不可用苦寒之藥, 火氣

盛故也. 宜導痰湯加千縉湯. 有痰亦短氣而喘. 陰虛, 自小腹下火起, 衝於上喘者, 宜降心火補陰.”

지하는 바와 같이 저녁이 되면 血은 肝으로 歸하게 되어, 肝이 血을 藏하게 된다. 그러므로 瘀血이 생기게 되면 肝藏血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 “肝脈搏堅而長, 色不清, 當病墜若搏, 因血在脇下, 令人喘逆.”⁵⁵⁾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가 본 문장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생긴 瘀血이 반드시 脇下에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肝과 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 肝이 主하는 脇下에 瘀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로 인해 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淫氣가 脾를 害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醫家들이 五行의 相克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木克土”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국 교수는 肝이 五行 순환을 시작하려 할 때 脾로부터 穀氣의 滋養을 받게 되는데, 肝이 손상됨으로 인해 脾의 穀氣가 퍼지지 못하게 되어 脾가 害를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⁶⁾ 논자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좀더 진행시켜 보고자 한다. 肝은 疏泄작용을 통해 生→長→化→收→藏의 오행 순환 가운데 가장 처음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發生이라는 것은 겨우내 腎에서 갈무리하고 있던 精을 끄집어내어 전신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精이 腎陽의 氣化작용을 통해 전신으로 분포되지만, 肝의 疏泄작용이 침부되지 않으면 원활한 精의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한편, 腎陽과 肝은 腎에 갈무리되어 있는 精을 전신으로 분포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脾가 穀氣를 전신으로 퍼지게 하는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瘀血이 쌓여 肝의 기능이 약화되면, 穀氣가 전신으로 퍼지지 못하여 脾가 害를 입게 되는 것이다.

3) 有所驚恐, 喘出於肺, 淫氣傷心.

驚恐하게 되면 氣가 蕩散되거나 下陷되어 제 劑도를 일탈하게 된다. 肺는 氣를 갈무리하고 주관하게

되는데,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氣가 갈무리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肺의 收斂기능과 肅降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게 되어 喘이 肺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朱震亨이 제시한 喘의 원인 가운데 “氣虛”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肺는 收斂기능과 肅降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논자는 心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이를 통해 肺에서 생긴 喘이 心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心과 肺는 위치적으로 횡격막 상부에 위치하면서 陽中之陽(心)과 陽中之陰(肺)에 배속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心은 火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火는 炎上和 發散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인체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心이 지니고 있는 火는 본 속성대로 炎上和 發散의 작용만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부에 위치한 火가 아래로 내려가 하부의 水와 만남으로써 體內的 水火既濟 상태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心火는 그 자체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肺의 도움을 얻게 되는데, 肺는 陰氣를 수렴시키고 肅降시키는 기능을 통해 心火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心과 肺는 나란히 횡격막 상부에 위치하여 서로 상반된 기능을 발휘하면서 체내의 정상적인 水升火降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肺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收斂과 肅降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4) 渡水跌仆, 喘出於腎與骨.

물을 건너게 되면 인체는 水濕의 邪氣에 노출이 된다. 많은 醫家들이 지적하였듯이 水濕은 腎과 通하므로 腎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水濕이 腎과 通하기 때문에 喘이 腎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면, 夜行으로 인해 腎에서 발생하는 喘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高士宗은 夜行보다 심한 것으로 보았고, 胡天雄도 疲勞가 쌓이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물을 건너면서 접촉하게 되는 水濕의 邪氣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해 腎精이 耗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물을 건넌 것으로

5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社, 1981, 58쪽.

56) 朴贊國, 『懸吐 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353쪽.

써 水濕의 邪氣에 저촉이 되고, 또한 腎精이 모손되는 상황을 겸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감수한 濕邪는 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腎精의 모손은 陰虛의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朱震亨이 제시한 喘의 원인 가운데 “陰虛”와 “有痰”의 경우를 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구절은 다른 藏으로의 전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서 모든 醫家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고, 오직 高士宗만 “不能上合于肺”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高士宗 역시 “不能上合于肺”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논자는 高士宗의 주장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 본 구절은 喘의 원인에 대해 水濕之邪와 腎精不足이라는 부분을 겸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물을 건넌으로써 감수하게 되는 水濕之邪라고 할 수 있다. 濕은 그 성질이 留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濕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濕熱”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濕이 鬱滯됨으로 인해 熱로 化하는 경우를 濕熱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와 같이 濕은 잘 行하지 못하고 鬱滯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濕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渡水에 의해 腎에서 발생하는 喘은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다른 藏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다.

Ⅲ. 結 論

『素問·經脈別論』의 五藏喘과 관련된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夜行으로 喘이 腎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녁에 활동을 하여 腎이 수고롭게 된다는 주장, 營氣가 길러지지 못하여 陰不足의 상태가 된다는 주장, 그리고 腎氣가 外泄되기 때문이라는 3가지의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한편, 淫氣病肺에 대해서는 肺가 병들어 오형순서를 거슬러 병이 전이된다는 주장, 子虛하면 母氣를 泄한다

는 주장, 腎少陰脈이 肺中으로 入한다는 주장, 腎과 肺를 本末의 관계로 인식하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둘째, 墮恐으로 喘이 肝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醫家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筋을 傷하기 때문에 肝과 관련되었다. 이에 비해 馬蒔는 “血不納”, 胡天雄은 “瘀血”을 주장하고 있다. 淫氣害脾에 대해서는 모든 醫家들이 “木克土”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驚恐으로 喘이 肺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肺藏氣, 肺主氣의 인식아래 놀라게 되면 氣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肺에서 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淫氣傷心에 대해서는 놀라게 되면 心神이 歸倚할 곳이 없기 때문에 心으로 병이 전해진다는 주장과, 肺가 心의 덮개이기 때문에 肺의 병이 心으로 전해진다는 주장이 있다.

넷째, 渡水跌仆로 喘이 腎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水濕之邪가 腎과 通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跌仆로 骨이 傷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勞累의 產物이라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논자는 본문의 내용을 朱震亨이 제시한 喘의 원인, 즉 “陰虛” “氣虛” “有痰”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병의 전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규명해 보았다.

첫째, 夜行을 하게 되면 精이 저장되지 못하여 “陰虛”의 상태가 될 수 있다. 한편, 腎과 肺는 閉藏과 收斂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陰化과정의 두 축인데, 그 중 한 축이 병들면 다른 한 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腎의 병이 肺로 전해지는 것이다.

둘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瘀血이 생기는데, 肝은 藏血하는 기능이 있어 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喘이 肝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는

“有痰”과 관련이 있다. 한편, 肝은 疏泄기능이 있어 精과 穀氣를 전신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 肝이 병들면 脾가 穀氣를 전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肝의 병이 脾로 전해지게 된다.

셋째, 놀라게 되면 氣가 蕩散·下陷되어 제 氣도를 일탈하게 되고, 그 결과 氣를 主하는 肺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喘이 肺에서 발생하고, 이 경우는 “氣虛”와 관련이 있다. 한편, 肺는 收斂肅降 기능을 통해 心의 陽氣를 아래로 전달해 주는데, 肺가 병들어서 인해서 心의 陽氣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여 心이 손상되는 것이다.

넷째, 渡水跌仆는 水濕之邪가 인체를 침범하게 되고, 또 과도한 활동으로 腎精이 모손되는 것을 兼하고 있다. 그러므로 喘이 腎과 骨에서 발생하고, 이 경우는 “有痰”과 “陰虛”를 겸하게 된다. 한편, 濕은 留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臟으로의 전이가 발생하기 않게 된다.

參考文獻

1.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2. 丹波元簡,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8
4. 朴贊國, 『懸吐 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5.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6.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學苑出版社, 2001
7.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學苑出版社, 2002
8.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1
9. 李志庸 主編, 『張景岳 醫學全書·景岳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0. 張介賓, 『類經』, 人民衛生出版社, 1980
11. 朱震亨, 『丹溪醫集·丹溪心法』, 人民衛生出版社, 1993
12. 許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1990
13.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社, 1981.